

불교대중화 수준 가늠하는 척도

조계종 직장·직능불교 현황 조사 의미

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가 전국 직장·직능불교 현황과 학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직장·직능불교 활성화 대책을 제정한 것은 매우 소중한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직장법회는 131, 직능법회는 53곳이다. 91년의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직장법회는 36곳이 늘어났다. 그러나 타종교의 활발한 활동과 비해 침체를 견디지 못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개신교는 서울의 25개 구청에 모두 신우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불교는 성북구청과 중구청 2곳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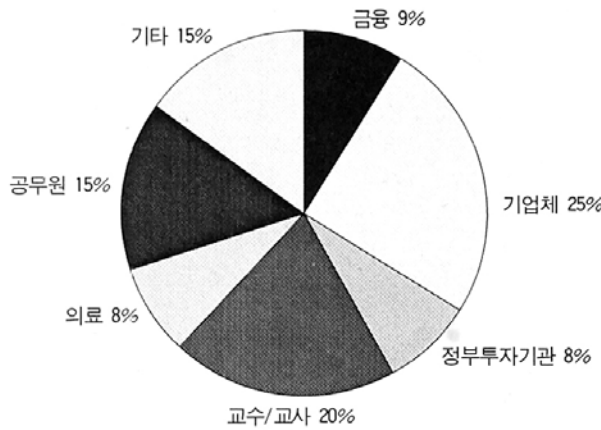
직장·직능법회는 사찰신행과 함께 불교신행의 두 축을 이룬다. 특히 우리 사

도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몇몇 불자들의 원력에 의존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불자가 전근 또는 퇴직할 경우는 법회가 결성되었다고 1년 이상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실제 서울지역의 경우 91년 조사에서 파악했던 동작구청불교회 국토개발원불교회 등 9곳이 해산되고, 11개 직장법회가 새로 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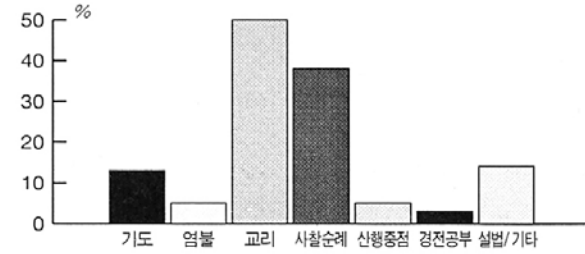
이같은 부침현상의 원인은 회원들의 소극성에 기인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종단 및 인근 사찰의 무관심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를 대행한 <대중불교> 김희균 주간은 '법회는 대개 지도법사가 없이 그

<업종별 직장·직능 법회 분포>



<신행형태 (중복응답)>



포교원과의 긴밀한 지원협조체계 구축 △직장·직능법회와 인근 사찰과의 결연을 통한 지원방안 강구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포교원도 빠르면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가 중앙종회 분과위원회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중앙

종회가 집행부서인 총무원을 감시 통제하는 기능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료와 함께 대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앙종회는 물론 교계의 한 전향으로 평가할만 하다.

정성운 기자

소극활동 지양 참여확대 계기 삼아야 '사찰과 교류' 등 종단차원 지원책 절실

회의 흐름이 산업화·정보화시대로 진입하면서 직장 및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직능법회의 비중은 매우 커지며 기존의 사찰에서 직장 직능으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직장·직능법회는 삶의 현장에서의 신생활이라는 점에서 불교대중화와 생활불교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또 정부기관에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개신교 신행단체(신우회)의 영향력이 종교편향적인 정부정책의 시발이라는 점에서 직장·직능법회의 중요성을 더해준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직장·직능법회는 종단차원의 지원은 물론 현황 파악도 안되어 있었다. 한 마

때그때 외부의 법사를 초청해 진행하는데, 그레박야 1년 정도 하다보면 법문이 반복되기 십상이다. 단계별 프로그램이 어디에도 준비되지 않아 회원은 차츰 흥미를 잃게 된다. 지도법사를 모시고 싶지만 지속적으로 애정을 갖는 스님은 전국을 통틀어 손꼽을 정도이다. 경제적으로 그럴만한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포교분과위원회는 이번 조사보고서를 통해 "직장·직능법회의 활성화는 불교대중화의 핵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히고 "불교대중화, 저변화를 위한 종단차원의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와함께 포교분과위원회는 △신행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중양신도회 및

시론 한국불교의 슬픈 열기

나는 이 글을 쓰기가 너무나 답답하다. 나는 지금 수행불교 참여불교 다 싫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선거철을 맞아 도무지 국민적 가치가 될 수 없는 망국적인 지역 감정들이 여타의 모든 가치를 압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종교 감정까지 가세해서 국민정신을 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모두가 자기 종교 출신이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배타성은 낯설지 않다. 그러나 불교는 본래 그 관용과 보편성과 무당파성으로써 매력과 우수성으로 평가돼 왔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불교가 자신의 특성에서 현실을 극복하려는 열기와 에너지를 얻고 있지 못하고 상대 종교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그 동기와 에너지를 주

리고 있는 느낌이다.

과거엔 너무 조용해서 탈이었다. 그래서 조계종은 찢어진 복인가 하고 신문 사설에까지 질책이 등장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조계종의 항의의 목소리에 사회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우리 승가는 노태우씨 대선 때는 발을 동동 굴리고 쫓쫓쫓 뛰지 않았던가? 바로 그 정서가 지금 선거철을 맞아 반(反)YS 정서를 타고 불교탄압의 절규로써 역사의 되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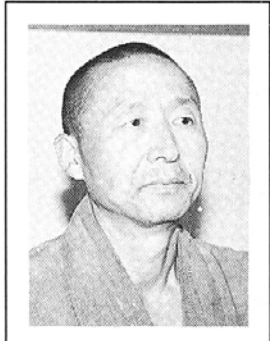
불교장래 걱정할 사람

우리 불교인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모조리 우리 불자가 돼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려(思慮)가 없다. 그저 맹목이다. 과거의 호국불교가 그랬었다. 이것이 분명 명분 시대를 치유하려는 치료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그 자체가 도리어 커다란 치료요청되는 하나의 병든 음성인가?

보라!

오늘날 한국불교는 애종 애교자(愛宗 愛教者)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불교적인 삶'을 그토록 사랑하는 자는 보지 못하겠으니 이 어찌 자기 모순인가?



휴 암 <필공산 기기암>

그러나 나는 타종교에 대해선 더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한국불교의 지금의 사회의식은 자신의 이윤 확대가 목적인 세속 사업가적 세속의식이지 세속적 가치를 허망시키고 자기를 초월하여 역사와 종성을 구제하려는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종교 후보에 표적기

과거의 한국불교는 무조건 호국불교였었다. 그 뒤를 계승한 것이 젊은 승가인들을 통한 광우 정서적인 운동권적 의식의 한국승가예의 유입이었다.

반체제 반정부 투쟁이 그 의식의 기조이며 그 전술 전략적 수단으로 반양키 불교탄압 전봉수호의 기치를 내걸고 불교의 사회적 역사적 의식을 고취한 것이었고 바로 그 정서가 재작년 4월 사태 이후 지금 한국불교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식의 흐름 속에 한국불교는 부적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 목소리의 높이는 지금 어쩌면 애종(愛宗)의 상징 행세를 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승단 내에서 정치로 입지를 찾으려는 승려들에게는 호재(好材)가 되는 토양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불교계는 불교탄압의 항의성도 능성들이 만발하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마치 과거의 호국불교의 맹목성이 참여불교의 열기 속에 재현

오늘의 한국승가는 이 허망무실(虛妄無實)한 사바의 현세계에 자신의 참가치를 심어주려는 열의와 사명감이 중심이 돼 있는 흐름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승단에서 종교가 하는 본분이 뭔지 잘 모르는 명정이가 있다.

허!허! 나는 아무 종교인이 국회의원이 되든 그것이 불교인든 기독교인든 도무지 상관없는 바보 명정이라네. 말소사! 한국불교가 언제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종단이 될까?

나는 한국불교의 애종 애교의 스님들이 지금 반(反)YS의 정서 만큼이나 자신들이 불교적으로 사는 데 그토록 열렬한 관심을 가져왔으면 한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정말 불교적으로 살고 있지 않은 그 점을 반(反)YS의 열기만큼이나 슬퍼해 보았는가?

오늘날 이 승단에 정말 불교의 장래를 걱정할 자격자는 누구인가?

그는 의당 자기 자신이나 이 세상이 어떻게 불교적인 삶을 잘 살 수 있을 까를 반(反)YS의 열기만큼이나 걱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든 거동은 병든 거동이요 자기 기만임을 알아야 한다.

신행혁신 넘어 범시민운동 기대

교계 7개단체 추진 '청정운동' 의의

대한불교진흥원과 재가회의 등 교계 7개 단체가 청정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는 '청정운동'은 한마디로 지계와 보시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제반 혼란이 나에게서 비롯함을 깨닫는 데서 출발한다. 즉 온갖 구호와 슬로건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사회의 청정성을 회복하는 힘의 원천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추진협의회가 지계·보시의 생활화를 위해 실천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다. 김형균 추진위 홍보위원장은 "새로운 것

도,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사소한 이웃에 대한 배려가 확산될 때 가치있고 신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리적이고 선언적 차원이 아닌 최소한의 실천 가능한 사안에 중점을 두었다"고 이 운동의 성격을 설명했다.

△야침예불을 올리고, 독경 또는 참선수행을 한다 △술 고기 담배를 삼가한다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 △화재하지 않는다. 이 청정 5계를 매일 1일을 지계일로 정해 이날만은 지키자는 것이다. 자기를 되돌아보는 삶,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태도, 환경과 절약의 생활화의 철학을 담고 있다. 불자

다운 삶의 출발이다.

불자들의 모범적인 생활태도가 정착될 때 자연스럽게 불자들의 새로운 신행상이 정립된다. 지계와 보시는 불자가 아니라도 건전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생활태

청정 5계·보시생활화 등 불자상 제시 환경보호·절약·자비등 실천지침 확산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최 최 최 최 최 최 최 최
운 운 운 운 운 운 운 운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울 울 울 울 울 울 울 울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최 최 최 최 최 최 최 최
운 운 운 운 운 운 운 운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울 울 울 울 울 울 울 울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최 최 최 최 최 최 최 최
운 운 운 운 운 운 운 운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울 울 울 울 울 울 울 울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법사인단 한국불교교화원 수습대책위원회

위원장 석성륜 <포교사법사회총회장>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최 최 최 최 최 최 최 최
운 운 운 운 운 운 운 운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서
울 울 울 울 울 울 울 울
지 지 지 지 지 지 지 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장

다섯째 : 법인 김법원 상임이사장은 본 법인재의 재산 내역은(중앙회관도립사 등) 철저하게 조사하고 운영실태를 수습대책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다.

여섯째 : 한성정 이사장의 문제는 본 법인의 판결에서 진·부가 가려진후 총회의결 사항이므로 논의한다.

본 수습대책위원회는 한국불교교화원의 구성원으로써 또한 교화원의 핵심체인 포교사·법사의 임원으로 신성함을 지키는 자들의 행위를 단호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상기와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상기의 결의사항이 즉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 수습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반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불기 2540년 3월 3일

셋째 : 정정교회를 내세워 선동하며 행동을 같이하고 있는 백남권(불교여래원장) 이정숙(법화총동원장) 이병진(용천사 주지) 배정진(신원동 청소년독서실장) 씨 등은 심사숙고하고 참회하며 스스로 자중하기를 권면하는 바이다.

네째 : 이외의 모든 화합의 승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러한 불미한 사태를 원만히 수습해야 할 처지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방관 또는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언행을 일삼아 왔음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바 총재로서 마땅히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자퇴하여야 한다.

다섯째 : 정정교회를 내세워 선동하며 행동을 같이하고 있는 백남권(불교여래원장) 이정숙(법화총동원장) 이병진(용천사 주지) 배정진(신원동 청소년독서실장) 씨 등은 심사숙고하고 참회하며 스스로 자중하기를 권면하는 바이다.

여섯째 : 한성정 이사장의 문제는 본 법인의 판결에서 진·부가 가려진후 총회의결 사항이므로 논의한다.

본 수습대책위원회는 한국불교교화원의 구성원으로써 또한 교화원의 핵심체인 포교사·법사의 임원으로 신성함을 지키는 자들의 행위를 단호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상기와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상기의 결의사항이 즉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 수습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반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불기 2540년 3월 3일

최근 한국불교교화원의 한성정 이사장을 모해하는 불순행위에 대하여 본 수습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한국불교교화원은 1988년 명칭만 존재하던 법인체를 현 이사장인 한성정 법사가 태고종에서 인수하여 삼보를 의호하며 생활불교·대중불교의 포교도량으로 발전시켜 왔을 뿐 아니라 중앙회관을 건립 명실상부한 불교단체로 우뚝설 수 있게 되어 90여개의 등록 사찰과 3백여명의 포교사·법사등 수백명의 회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포교·전방에 매진할 수 있는 토전이 마련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현 이사장 한성정 법사의 불교 포교의 원력과 회원 불자들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불사라는 것은 천황하가 아닌 사실이다. 중앙회관을 건립하면서 많은 부채가 발생하였으나 한성정 이사장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부채가 어느정도 정리되어 본 법인이 불교 포교를 위해 원대한 꿈을 가지고 도약해야 할 지금 그동안 교화원이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눈길도 주지않고 있던 일부 이사들이 부채정리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단합하여 한성정 이사장을 퇴진시키기 위해 증거 없이 허무맹랑하게 날조된 유언비어를 유포시켜 본 법인의 화합을 해치고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는 등 심각한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하여 본 사태를 부처님 법안에서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 지난 1995년 12월 10일 정기총회에서 수습대책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본 수습대책위원회는 본 수습대책위원회 결의의 권고한 사항을 묵살하고 계속 불법행위로 본 사태를 비화시켰다. 실로 이는 불자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배반 행위로서, 이러한 배반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결 의 문

첫째 : 수습대책위원회는 지난 1996년 1월 13일 정창표(홍성동 도립사 주지)씨에게 모든 소송을 위하하고 1995년 10월 이전의 화합 상태로 되돌아갈 것을 결의하여 권고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창표씨 등은 이를 무시하고 이사장의 인격을 훼손할 뿐 아니라 사교집단 운운하는 등 교화원을 모독하는 내용의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실로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총의에 의해 결정된 본 수습대책위원회를 불법 단체 운운하는 것은 교화원 간부의 한사람으로써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정창표씨는 모든 소송을 위하하고 부처님과 2천만 불자 앞에 깊이 참회하고 교화원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둘째 : 정창표씨를 내세워 선동하며 행동을 같이하고 있는 백남권(불교여래원장) 이정숙(법화총동원장) 이병진(용천사 주지) 배정진(신원동 청소년독서실장) 씨 등은 심사숙고하고 참회하며 스스로 자중하기를 권면하는 바이다.

셋째 : 이외의 모든 화합의 승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러한 불미한 사태를 원만히 수습해야 할 처지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방관 또는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언행을 일삼아 왔음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바 총재로서 마땅히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자퇴하여야 한다.

다섯째 : 정정교회를 내세워 선동하며 행동을 같이하고 있는 백남권(불교여래원장) 이정숙(법화총동원장) 이병진(용천사 주지) 배정진(신원동 청소년독서실장) 씨 등은 심사숙고하고 참회하며 스스로 자중하기를 권면하는 바이다.

여섯째 : 한성정 이사장의 문제는 본 법인의 판결에서 진·부가 가려진후 총회의결 사항이므로 논의한다.

본 수습대책위원회는 한국불교교화원의 구성원으로써 또한 교화원의 핵심체인 포교사·법사의 임원으로 신성함을 지키는 자들의 행위를 단호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상기와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상기의 결의사항이 즉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 수습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반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불기 2540년 3월 3일